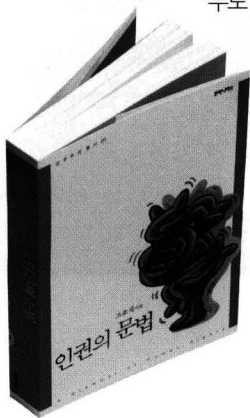


인권에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자명하게 주어지는 권리로, 정의는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담론의 가치는 때론 복잡하고 때론 미묘하다. 인권 개념을 선형적이고 절대적이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최고선으로 단순화해서 기술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장점만큼이나 문제도 많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아

무도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던 '인권은 선형적이고, 절대적이며, 최고선인가' 하는 것이 이 책의 도발적 문제제기이다.

저자는 "인권은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동기와 상관없이 논리적인 비판일 경우 이론적·지성적으로 조우해야 한다. 비판이 인권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론들 덕분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류 발생부터 1987년 6월 항쟁 답아

"역사는 늘 새롭게 씌어져야 하며 따라서 모든 지난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는 칼 베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오늘에 되살아난 현재적 모습이야 함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역사》에는 인류의 발생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한 권으로 담아낸 역사학자 이이화의 집요한 사유가 담겨 있다.

역사 대중화를 위한 집필로 평생을 살아온 저자는 이제까지의 역사책들이, 대중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저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한 흥미는 자연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빙하시대부터 급변하는 정치와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불어 살아온 우리네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한 저자의 내공이 오롯이 묻어난다. **★**

글_장동석 기자



'참' 나를 만나러 가는 순례의 길

낯선 곳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도전이다. 1990년부터 세계 오지를 떠돌며 기록한 사진과 글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는 여행사진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이해선. 그녀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풍경을 찾아 카메라를 들고 바람처럼 떠돈 지 20년. 작가는 "내 삶의 일부가 됐고, 그것은 나만의 수행법인지 모르다"라고 오지 여행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는다. 《내 마음 속의 상그리리》는 작가가 오지 여행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풍경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상그리리는 티베트어로 '내 마음속 해와 달'이라는 뜻이다.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상향으로 상그리리가 그려졌다.

"내게 있어 오지 여행은 참 나를 만나러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오체투지의 기도로 신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들, 그들에게서 나는 하심(下心)하는 법을 배웁니다"라고 고백하는 작가의 진정한 스승은 오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인문사회 계간지 <당대비평>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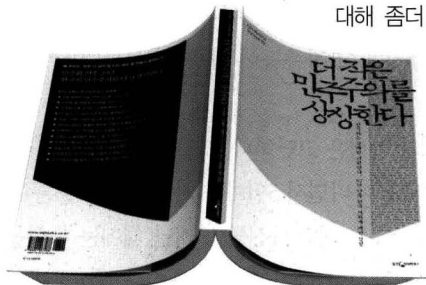
인문사회 계간지 <당대비평>은 1997년 창간 이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평화주의자의 편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읽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온 매체이다. 그러나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 휴간에 들어간 지 두 해가 지났다. 그동안 <당대비평> 편집위원들은 복간 가능성을 모색해 오다 민주화 20주년을 맞아 부정기 형태의 모습으로 <당대비평>을 부활시켰다.

부제는 '민주화는 실패한 기획인가, 87년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이다.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는 민주화 20주년인 올해, '민주화는 혹시 실패한 기획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머릿글을 쓴 연세대 이상길 교수는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담론에서 지금까지

지 제대로 사유되지 않은 것,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좀더 급진적으로 사유하고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_정윤희 기자



《인권의 문법》 조효제 지음 | 후마니타스 | 392쪽 | 값 18,000원

《역사》 이이화 지음 | 열림원 | 536쪽 | 값 14,500원

《내 마음 속의 상그리리》 이해선 지음 | 대교베셀스만 | 303쪽 | 값 9,800원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당대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 웅진지식하우스 | 340쪽 | 값 13,000원

의식주로 살펴본 고대 서양인들의 풍속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인들의 의식주와 여가, 문화생활의 소소한 단면들을 소개한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흔히 정치, 경제, 사회제도 등의 고리타분한 부분만 살펴보기 쉽지만 이 책은 서양의 과거 실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인들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회를 즐겼던 고대 로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손을 사용했다는 사실

식생활, 르네상스 귀족들의 오락거리, 유행했던 옷 스타일 등 생활문화 전반과 현대에 통용되는 개념인 '사생활'의 역사를 담았다.



알수록 재미있는 명언 탄생 배경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와 같이 역사적 명언을 중심으로

세계사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책이다. 들어봄 직한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거나 강한 인상을 심어준 70인의 한마디를 시대 흐름 순으로 정리해 명언의 탄생 배경과 진짜 의미를 담았다. 말 속에 담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또 잘못 해석되거나 이해하고 있는 명언의 본뜻과 시대 배경을 알 수 있어 재미있다. **★**

글 송보경 기자

《속속들이 이해하는 서양 생활사》 김복래 지음 | 안티쿠스 | 352쪽 | 값 12,000원
 《한마디를 이긴 한마디》 헬게 헤세 지음 | 박종대 옮김 | 북스코프 | 448쪽 | 값 15,000원
 《능라도에서 생긴 일》 이제하 지음 | 세계사 | 276쪽 | 값 10,000원
 《황금 지붕》 오수연 지음 | 실천문학 | 336쪽 | 값 9,800원

'소통부재'의 현대사회에 던지는 경고

나에게 갑자기 총이 한 자루 생긴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자아와 세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불온하고 은밀한 '한방'을 꿈꿔본 적이 있다. 총은 매혹적이지만 그로 인한 핏빛 죽음은 죄악이다. 환상적 리얼리즘, 광기의 미학으로 한 국문학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 이제하가 17년 만에 출간한 장편소설에서 이 '총'에 대해 얘기한다.

'능라도'라는 인터넷 동호회 앞으로 권총 한 자루가 배달된다. 회원들은 그 권총에 '엘리펀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각자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회원들이 총을 대여하는 사유는 자극히 개인적인 원인이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사회적 병증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부재'의 현대사회에 던지는 작가의 경고로도 읽힌다.



현실 고발을 넘어선 새로운 소설 '미학'

언젠가 오수연 작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나의 경험을 소재주의로 국한해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그녀에게 이eben 소설집의 소설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 검열과 쓰는 자됨의 절망을 이겨낸 '결과물'인지 감히 짐작해 볼 따름이다.

책에 실린 7편의 단편은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모두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쉽게 읽히지 않는다. 뚜렷한 인물도 없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공간적 배경도 몽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런 '부조리극' 같은 기법을 통해 어느 한 장소나 시점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의 보편성,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혼돈 상태를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현실의 고발을 넘어선 새로운 소설의 '미학'을 획득한 작품집이다.

"지구를 우그러뜨리는 장력과는 반대의 힘"이 "기도"처럼 소설집의 전편을 관통하는, 그래서 읽는 자를 "구하는" 소설집이다. **★**



글 이주연 기자